

buddhanews.com

일체 만물만생이 다 내 스승 아님 하나 없어

21면에서 계속

따라서, 무슨 가난하고 부자로 살고 이래서가 아니라 없던 있던 자기가 어떠한 생각을 했고, 어떠한 행을 했고, 어떠한 말을 했고, 상대성 원리로써 폭넓게 살았느냐 폭넓지 못하게 살았느냐, 약하게 살았느냐 선하게 살았느냐 이런 것대로, 자기가 산 대로, 심은 대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그렇게 배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불교다' 한다면 그것도 이름입니다. 이름인데, 애당초에 불(佛)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불로 하여금 우리는 바로 생산자를 개발하게 됐고, 교(敎)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마음과 마음을 전달하고, 말과 말을 전달하고, 통신을 하고 나가는 그 자체입니다. 개미들도 자기네들끼리 속삭거리고, 아주 말들을 잘합니다. 개미뿐만 아닙니다. 개미도 작은 것들입니다. 아주 암암한 것들은 굴에서 흙을 파 가지고 나와서 그 앞쪽에다가 딱딱 놓습니다. 그러나 좀 등지고 앉을 내다보고 사는 개미는 앞에도 놓지 않고 쭉 나와서 밑까지 깔고 들어갑니다. 그와 같이 인간 자체도 그렇게 암암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능수능란하고 지혜롭게, 똑똑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똑같이 진실하게 살지 못하느냐? 이걸 마음 탓입니다. 앞뒤를 생각 안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앞뒤를 들어 봐야 알지, 앞뒤를 들어 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먹어 봐야, 마셔 봐야 맛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라는 이름 이전에 생활이 종교라는 겁니다. 우리 생활이 종교니까 그대로 생활 속에서 지혜를 넓히려면, 아주 못생긴 사람이든지 얇은 사람이든지 여자든지 남자든지 하이에, 애라도 똑바른 말을 하면 귀담아 듣고 그것을 흘리지 말아라 하는 거죠. 사람만 스승이 아니라 일체 만물만생이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저 나무잎들도 봄이 되면 피어났다가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어서 떨어집니다. 그래도 나무는 겨울 내내 하얀 눈과 비를 다 맞고 그 비바람에 조금도 끄떡없이 인내롭게 봄을 기다리고 있으니 그것이 마음을 보는 듯 하지 않습니까?

우리로 참는 게 있고 기다리는 게 있고 여유가 있어야 빛을 볼 수 있고 화목을 가져올 수 있고 복을 받을 수가 있지, 그 인내로움이 없고 불끈불끈 그냥 화나는 대로 해 버린다면 그것은 포근한 화목을 가져올 수도 없거니와 재물을 늘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있거든요. 들어 오려고 까딱까딱하다가 말합니다. 그 집이 시끄러우면 '에이! 이 집에 들어가 봤자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그러니까 귀찮다!' 그러곤 댄 데로 가요.

이 만물이 다 그러해서 스승이 아닌 게 없습니다. 나무를 봐도 스승이요, 풀 한 포기 봐도 스승이요, 물 흘러가는 걸 봐도 스승이요, 집들을 울

을 한다면 그것들을 녹일 수 있습니다.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거기다 놓고 또 '너만이 낮게 할 수 있어!' 그리고 거기다 놓는 겁니다.

나무 뿌리가 말합니다. 제 나무의 뿌리가 제 나무를 돕지, 난 나무의 뿌리가 도와주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만물 만 뿌리에게가 달라고 빌어도 그것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제 뿌리에게가 '나, 지금 수분이 적어' 한다면 이 뿌리는 수분을 흡수해서 올리지만, 난 뿌리에게가 '나, 목이 말라' 한다고 그 목을 축이게 해 줘니까?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에게 빌지 말아라, 상대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공생하게 노예가 되지 말아라. 지금 노예 노릇을 하면 세세생생에 노예가 된다. 내 뿌리에서 나온 썩어가는 내 뿌리만이 이 썩어가는 병충해도 고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인간의 뿌리는 보이지 않는 뿌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인간의 뿌리를 못 보듯이 나무도 흙에 덮여서 자기 뿌리를 못 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뭐가 덮여서 못 보느냐? 무명이 덮여서 못 본다 이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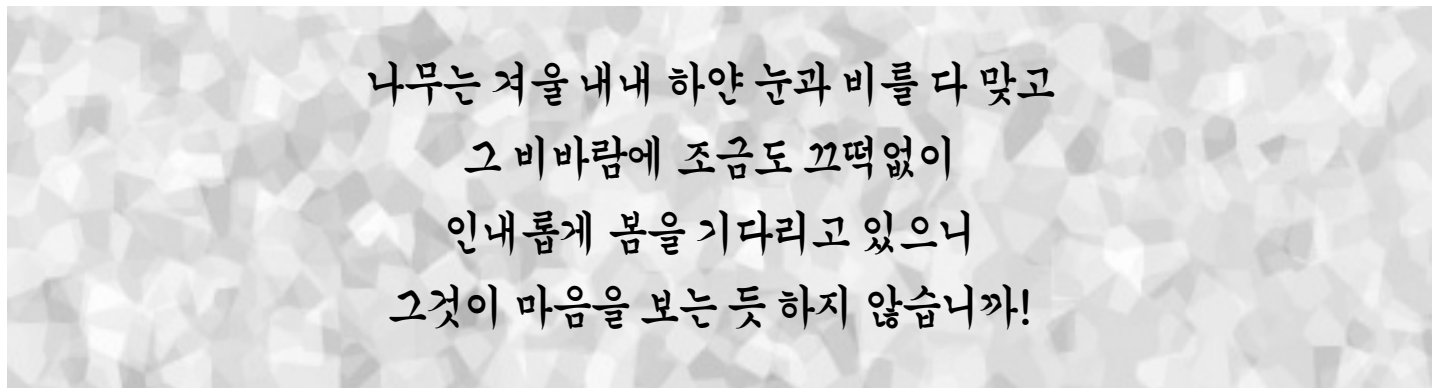
여기서 <반야심경>이나 <천수경>을 뜻으로 풀

을 한다면 그것들을 녹일 수 있습니다.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거기다 놓고 또 '너만이 낮게 할 수 있어!' 그리고 거기다 놓는 겁니다.

나무 뿌리가 말합니다. 제 나무의 뿌리가 제 나무를 돕지, 난 나무의 뿌리가 도와주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만물 만 뿌리에게가 달라고 빌어도 그것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제 뿌리에게가 '나, 지금 수분이 적어' 한다면 이 뿌리는 수분을 흡수해서 올리지만, 난 뿌리에게가 '나, 목이 말라' 한다고 그 목을 축이게 해 줘니까?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에게 빌지 말아라, 상대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공생하게 노예가 되지 말아라. 지금 노예 노릇을 하면 세세생생에 노예가 된다. 내 뿌리에서 나온 썩어가는 내 뿌리만이 이 썩어가는 병충해도 고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인간의 뿌리는 보이지 않는 뿌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인간의 뿌리를 못 보듯이 나무도 흙에 덮여서 자기 뿌리를 못 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뭐가 덮여서 못 보느냐? 무명이 덮여서 못 본다 이겁니다.

여기서 <반야심경>이나 <천수경>을 뜻으로 풀



개는 자동적인 컴퓨터가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 컴퓨터에 입력이 된 대로 지금 현실에 자주 나오는 것을 상상이라고 한다면, 그 상상을 풀는다고 보다는 그냥 그 나오는 데다 퇴입력을 시키면 앞서 입력된 거는 없어지지 않느냐, 이게 하나로 돌아가지 않느냐 이겁니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안 없어지는 것도 아닌, 즉 말하자면 일어났다가 꺼지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끊으려고 애 쓰고 잠을 끌어내려고 애쓰니, 잠이 끌어내지는 것이며 상상이 끊어지는 겁니까? 그래서 물은 나 같이 살아야 하며 저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산천초목은 초목대로 나같이 살아야 하고 저렇게 푸르르게 하고 있고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방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가 하면, 항상 애기하지만 어떠한 애고나 병고, 즉 말하자면 세균성, 업보성, 영계성, 인과성, 유전성이 자체가 전부 마음으로 해서 오는 거다 이겁니다. 이처럼 전자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그렇게 오는 모든 것을 재료로 알고 똥똥 똥똥 갖다가 집어넣어 입력

이해 놓은 것은, 여러분을 마음공부를 시키려면 그것도 전부 개선을 해서 뒤집어 놔야겠다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이 부처님 당대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경전이 수많은 나오다 보니까, 편집을 하다 보니까 그냥 기록으로 자주 자주 자주 글자 풀이만 해서 나오게 됐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모두가 이 뜻을 알고 이렇게 좀 들어간다면 <금강경>을 봐도 납득이 좀 될 겁니다. '여래의 몸이 있다고 하겠느냐? 크다고 하겠느냐? 작다고 하겠느냐?' 이런 말들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말들도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서 서로 대화를 안 하면 납득을 못하죠. 어떻게 납득을 합니까? 그냥 만날 글자 풀이만 하다가 불일도 못 보죠.

나는 어떤 댄 길을 걷다가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 광대무변하고 말로는 알게 할 수 없는 이런 도리를, 말로 할 수가 없는 이런 광대한 법을, 말로는 가르칠 수가 없는 이런 것을 어떻게 책에 쓰고 어떻게 말로 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데도 그 도리도 어떻게, 왕정 한꺼번에 가르쳐 줘면 좋겠는데, 허허허... 그러지 못하

기 때문에 항상 길을 가다가도 고개가 꼭 떨어집니다.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해서 말이죠. 부족해서 몸뚱이를 모를 때가 많아요. 깔깔 웃다가도 말합니다. 웃음이 그냥 뿔뿔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일체 생명들 모두가 이렇게 공을 하고 공생으로서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생각한다면 나 아님이 하나도 없는데, 그 도리를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 이해를 시킬 수가 없어서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곤 하죠. 그럴 때는 웃다가도 '내가 이렇게 웃을 수 있는가?' 하고 그냥 멈춰버리고, 곁을 걸으면서 좀 싱그럽게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어이구! 부족한 내가 이렇게 싱그럽게 웃을 수 있을까? 싱그러운 마음으로 아주 즐거운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쫓! 이래도 한세상 저래도 한세상,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은 아는 대로 해야지 어찌겠냐? 그릇대로 답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나?' 그러고선 열도 쳐다볼 수가 없고 고개를 꼭 수그리고선 생각을 하면서 가다 보면 저 돌부리에 차이

내 마음 깊은 속에 주인공이라는 것은 바로 불씨와 에너지라고 할 수 있죠. 그 불씨로 인해서 마음을 내게 되죠. 마음을 내면 육신이 움쭉거리죠. 이 삼합이 같이 돌아가는 그 자체의 주인공을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인공을 못 믿어도 자기를 못 믿는 게 되니, 자기가 이 세상에 나오기부터 모든 게 벌어지고 오는 거지 자기가 없이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있기 때문에 식구들도 있고, 자기가 있기 때문에 생활도 있고, 자기가 있기 때문에 나라도 있고, 자기가 있기 때문에 종교도 있는 거지 자기가 없는데 뭐가 있었습니까? '뭐, 내 주먹만 믿으라는데 여길 가면 뭘 해?' 이러지만, 그것은 아니에요. 내 주먹만 믿으라고 학교에 가지도 않고 교과서만 놓고 배운다면 그거는 안 되죠. 물질세계와 정신세계가 합류화가 될 수가 없죠. 지혜가 넓어질 수도 없죠.

그러니까 요것은 요것대로 마치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시다가 어떠한 거라도, 생활에서 이것이 이렇게 안되는데 이럴때 어떻게 하거나, 어떤 것이 납득이 가지 않을 때, 그런 때는 질문하셔도 됩니다.

질문자1(남): 저는 <도(道)>라는 책을 통해서 큰 스님을 마음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인연이 박복하여 이제야 큰 스님을 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불이 들어오게끔 마음의 발전소를 가르치고 계시는 큰스님께서... 저는 한전의 발전소에 근무를 합니다.

큰스님: 하하하...
질문자1(남): 물질세계의 발전소를 제가 돌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도 물질세계의 발전소를 돌리면서 큰스님의 그 마음의 발전소가 더 여러 사람에게 자주 지어지도록 큰스님께서 더욱 건강하시기를...

큰스님: 이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는 발전소는 한계가 없는 발전소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 발전소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항상 내가 말하듯이 '한계가 없는 것은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전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불이 들어오면 전력이 들어온 줄 알고 불이 나가면 전력이 나간 줄 알고, 그 전력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은 보지 못한다. 그와 같이 인간의 마음으로 전달하는 것은 가깝다 멀다 이런 것도 없이 전달이 되는 것이 바로 각자 여러분의 발전소다' 하는 겁니다.

(다음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3년 9월 5일 범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한**

불 전 함

움직이거나
터진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북 043-647-2378, 011-467-1472

사) 대승불교 조계종 부산교구

범음, 범패 의식 불교대학 제1기 학인 모집 안내

◆ 교육 과정 ◆

이론교육 : 본 중단 총무원장 한파스님 직강
실기교육 : 본 중단 강주 교육부장 성각스님

1. 기본과정 : 각단, 각청 불교제반의식
2. 49재 및 천도재 의식
범음범패, 상단권공 및 대령, 관육, 시식
천수바라무, 오공양 작법무

○ 영남 의식을 기준으로 함.

- ◆ 개강일 : 양, 8월 21일 금요일
- ◆ 수강일정 : 매주 화, 수, 금요일
- ◆ 수강시간 : 오후 3시
- ◆ 교육비 : 개강일로부터 1개월 무료
- ◆ 타 중단 스님도 환영합니다.
- ◆ 범음대학 : 흥은사 대응전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3가 31-153번지
- ◆ 문의 및 접수처 : 흥은사 (051)243-3165
본 총무원 (051)527-7733

중단홈페이지 <http://dsbuddha.org> 참조 인터넷 검색사이트 (다음, 네이버) 에 대승불교조계종 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부산교구 범음범패 불교대학 학장 유초 합창

영남불교예술대학 신입생모집

한국 범음범패 전통을 자랑하는 사) 부산산악회의 맥을 이어 종합 불교예술로 승화된 영남불교문화예술대학에서 의식교육 3기생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사부대중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모집학과 및 정원

모집학과	강의 내용	요일	시간	모집인원
1. 의식 기초반	이론 및 실기 (조식예불 및 불공)	화	2시~5시 아간반7시	30명 (6개월)
2. 의식 전문반	◎이론및실기, 사물다루는법 각종사찰행사전문반 ◎전통예불(범음범패·삼신이온진 안성·복청·원경도량·운상계·오공 양소리·진령계·사다리·육군이·실 개수공발보리·청양성호·관육계, 합창계,영산작법소리등.30여곡)	목	2시~5시	20명
3. 작법무반	바라, 나비, 사찰학춤	금	2시~4시	30명
4. 국악기반	태평소, 단소, 대금 (영산회상, 청성곡등)	금	4시~6시	30명

◆ 교육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 1동 159-1
백화도량 관음사내 영남불교예술대학

◆ 접수 연락처(교학처) : 051)327-5095 / 010-2314-1279

◆ 기숙승방 운영(선착순 우선): 단기 수련 후 심사 거쳐 이수증 발급
◆ 성적우수한자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우선추천

嶺南佛敎藝術大學
Young Nam Buddhism College of arts

★ 각종 사찰행사 전문으로 하는 스님 전국에 배정되어
어법하게 집전해 드립니다.
마음의 힘이 모이면 어두운 길에 환한 등불이 됩니다.
(보시금중 일부는 어려운 불자 자녀들의 장학기금에 쓰입니다)

010-2314-1279, 051)327-5095

한방 (韓方) 치료로

간경화, 간질

감상선향진증, 결핵성 임파선염

백남, 뇌수종

산후풍, 수족냉증

불임, 갱년기(울화)병

한솔한의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대한한 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423-중-5041호